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어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6월은 보광의달

우리의 영생 위해 보광하신 뜻 잊지말자

인류의 구세주 조희성님께서 보광하신 지 벌써 12년이 되었다.

6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세주께서는 인간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크게 2가지 조건(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첫째는 육신을 가지고 하는 조건이며, 둘째는 육신을 벗어 버리고 분신으로 하는 조건이다. 첫째 조건을 호조건이라고 하고, 두번째 조건을 악조건이라고 한다.

구세주께서는 호조건을 이루기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땀분서주 원근각 처 주야불문 뛰고 뛰셨지만 따르는 제자들이 반신반의 하는 고로 부득불 악조건으로 구원의 역사 방향을 틀었다.

구세주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300명의 의인을 먼저 키웠으나 마귀 세력의 반발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그 뜻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당신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의 상태에서 그 뜻을 이루

기 위하여 조건을 바꾸신 것이다.

구세주 조희성님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이것을 희생제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다음에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려도 좋고, 지옥에 던져도 좋으니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게 해 주옵소서"라고 울며불며 애원하는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1980년 10월 15일자로 하나님의 뜻인 예덴동산을 회복하신 다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4년간 분골쇄

신 노력하시다가 2004년 6월 19일 보광하신 것이다.

승리제단 전 신도들은 구세주 조희성님께서 남겨주신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2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세주 조희성님처럼 온 몸을 불살라 그 뜻을 이루는 데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보광 12주년을 맞이하는 승리제단 신도들은 구세주의 거룩하신 뜻을 잊지말고 마귀와의 싸움에 전력을 투구하여 기필코 승리하여야 할 것이다.*

악조건과 공동묘지



구세주의 보광의식장에서 내린 이슬성신

보광의 길은 악조건

구세주께서는 호조건을 이루기 위하여 2008년을 염두에 두고 의인을 만들어 내는 천지공사를 전심전력으로 하셨으나, 따르는 사람들 중 호조건을 이룰 정도의 의인의 숫자인 300명의 의인이 나오지 못하자 마귀 역사가 발동하여 옥중에서 2004년 6월 19일 보광의 길로 돌연 조건을 바꾸셨다. 이는 악조건을 말하며, 구세주께서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의 상태로 천지공사를 하시는 것을 말한다.

자연히 영생을 주장하던 구세주께서 조건을 바꾸시어 보광의 길로 가시니 새식구 전도하기가 하늘의 별을 따듯 어려워졌고,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죄)의 길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의인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교인들이 타락하게 되자 이 세상은 점점 확산폭발이 찾아지고, 이 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혼돈의 상태로 빠지는 모습이다.

하여간 구세주께서 갑자기 보광하셨을 때 차마 구세주께서 보광의 길로 가실 것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묘소도 준비해 놓지 못한 상태라 시일이 촉박하고 여건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공동묘지에 모실 수밖에 없었다.

공동묘지에 안장되어야 구세주

그런데 구세주의 묘소가 공동묘지에 있어야 한다는 성경 예언이 있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즉 이사야 53장에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구세주의 묘소는 악인들이 함께 하는 공동묘지에 있어야 맞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구도의 길

하나님은 약속의 신이다.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마귀가 다시는 물로 인류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무지개를 띄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

마귀에게 패했던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고 '이기신 하나님'이 되신 후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인류가 믿게 하기 위하여 5가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기어이 지키셨다. 공산주의를 멸망시키겠다는 약속 후 그 약속대로 공산주의가 소멸되어 인류 전멸이라는 3차 세계대전의 염려를 없애셨다. 그 증거로 공산주의의 종주국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연금에서 해제되는 날 구세주께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어 공산주의를 없애셨고, 다시는 공산주의의 이념으로 이 세상을 공포로 몰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마른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셨다(오른쪽 사진 참조). 이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 여름 장마를 없애셨고, 계속 풍년들게 하고 계시며, 태풍이 못 불어오게 막으셨고, 남북전쟁을 못 일으키

구세주의 약속

게 하고 계신다.

이기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불사영생을 약속하셨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불사영생은 5대공약을 지키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구세주의 영은 정체인 영이 아니라 무량대수 배로 상승하는 영이다. 그것은 상대가 되는 마귀를 계속 이기는 영이기 때문에 능력이 무량대수 배로 상승하는 것이다. 초창기 감로 사진을 보면 감로가 미약한 모습으로 찍혔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감로의 사진이 강하게 찍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마귀를 완전히 박멸하는 능력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당신의 얼굴에서 무량한 빛을 방출하여 인류를 영생케 할 것이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이 나가는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영생이 이루어지리라.*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81)

"찬송은 생명을 기우는 심정으로 불러야"

찬송을 할 때에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해야 형식적으로, 자기 멋대로, 저음으로 노인네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인 고로 은혜 간직이 안 되며 자유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은혜를 간직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있는 정성을 다하여, 고음으로 불러야 한다. 찬송은 꼭조 있는 기도인 고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념이 있는 가운데 부르는 음성은 다르게 들리는 것이다. 이 사람에게게는 개소리처럼 들리는 것이다.

그런고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심정으로 모든 전체를 맡긴 가운데 부르는 음성은 다른 것이다. 은혜 입은 자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되고 똑같은 목소리로 들리는 것이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82)

"가사를 따라서 마음을 움직이며 찬송을 불러야"

찬송시간에 찬송을 하면서 잡념을 가지고 부르는 사람, 멍한 상태에서 부르는 사람, 뜻을 생각하며 부르는 사람, 은혜 창과 속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가 다 구분되어 들리는 것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불같이 임하고 물같이 임해야 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은혜인 것이다. 그런고

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성령이 임한 것이지 잡념을 품고 있는 마음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찬송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고로 찬송가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가사를 따라서 마음을 움직이며 찬송을 불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이 되어 은혜 안에 드는 것이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83)

"나라는 것을 의식하려야 할 수 없는 차원에 올라가야"

'나'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의 영이다. 그런고로 나를 완전히 죽여서 나라를 의식하려야 할 수 없는 차원에 올라가야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것이다. '나'라는 것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마음대로 해석하는 고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되고야 마는 것이다.

나를 완전히 죽이고 이긴 다음에 하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나를 완전히 죽이기 전에 다른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알려고 하는 것인 고로 마귀가 하늘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나를 완전히 이긴 다음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니 다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다른 것은 들을 필요가 없다. 무지몽매한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참 지혜의 말씀이 오히려 허망하게 들리고 허망한 소리가 오히려 실속 있게 들리는 것이다.*

5월15일자(711호) 신문에 **어비날 말씀 요절이 별도로 실린 관계로 요절이 밀려서 81-83까지 3회 연속으로 나가기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인사명령

박태선 승사를 언론출판사 직원으로 임명함

누구든지 내 몸처럼

승리제단은 사망을 이긴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율법을 지키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되는 안 죽는 종교입니다.



본지 지만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택(苦海)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고택의 바다를 오늘도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고택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모든 고택을 이긴 분입니다.

어떤 괴로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싶다면 승리제단을 두드리십시오. '이기신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시간 안내			
월-토요일	1부 예배	오전 9시 / 2부 예배	오후 2시
	3부 예배	오후 7시(단, 토요일은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1시		
위치	지하철 1호선 역곡남부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우1467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TEL 032-343-9981~2 <http://www.victor.or.kr>